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교수들과 학생, 동문회는 12일 오후 제주대 정문 앞에서 학교측의 인사 조치를 규탄하는 농성 투쟁을 진행했다. 강희만기자

##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갈등 격화

교수·동문·학생들 12일 학교 정문 앞서 농성  
대학원생, 같은 날 학습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기금교수 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교수와 학생, 동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12일 오후 제주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미래융합대학 교수들과 학생, 동문회가 참여한 농성 투쟁이 진행됐다. 이들은 “미래융합대학에서 발생한 교원 부당면직과 일방적인 계약 종료, 교육 기반 축소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연속성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성인학습자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교원 교체와 교육과정 불안정은 전공 이수 혼란과 졸업 지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 총장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은 재학생의 학습 조건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학생들이 입학 당시 약속받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과 질로 이수할 수 있도록 즉각적

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미래융합대학 동문 일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삭발식에 참여한 교수들이 소속된 학과에만 계약교수 배정 인원을 감원한 것은 보복성 인사로 비칠 수 있다”며 “총장이 약속했던 교원 신분 보장 등 학습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농성에 참여한 교수진 중 1명은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교수 계약 해지로 인한 학습·연구권 침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도교수 2명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면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을 앞둔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지도교수 변경 상황에 놓였다”며 “사전 협의나 공식 설명 없이 진행된 결정은 중대한 학습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재현기자

## 겨울방학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13일 도교육청 누리집서 신청

2026년 놀레올레 겨울방학 온동네 키움 프로그램이 오는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운영된다.

제주도서관은 학교 밖 돌봄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 오후 2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로봇 코딩(화), 독서 보드게임(수), 창의 융합 과학 활동(목), 독서 논술(금), 영어 그림책 수업(토) 등 5개 분야로 나뉘어요일별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강좌별 모집 인원은 12명이다. 김재현기자

## “신구간 특수는 옛말”... 이사철 앞두고도 한산

서문가구거리, 주문 하루 한두 건뿐... 줄줄이 폐업  
경기 침체에다 온라인·대형 매장 확산으로 ‘직격탄’  
전통 이사철 풍경 사라지며 구도심 상권 침체 가속

“신구간(新舊間)인데도 주문이 하루에 한 두건도 안 돼요. 신구간 특수는 다 옛말이죠.”

12일 오전 제주시 용담1동의 서문가구거리. 신구간을 불과 2주 가량 앞둔 전통 ‘이사대목’ 입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가 한산했다. 신구간 맛이 ‘특별 세일’은커녕 월요일 오전임에도 가게문을 닫은 점포가 8곳이나 됐다.

신구간은 제주의 전통 ‘이사철’을 일컫는 말로, 대한 후 5일째부터 입춘 전 3일까지 7~8일 동안 이어진다. 올해 신구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다.

매년 신구간에 맞춰 이사를 계획하는 도민들이 많아 가구점 등도 북새통을 이뤘다. 한 상인은 “신구간 전 20일 장사로 1년을 먹고살았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신구간 풍습이 사라져가

고, 서문시장 일대가 구도심화되면서 서문가구거리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모두 “신구간 특수는 옛말”이라고 입을 모았다.

30년 넘게 가구점을 운영해 온 광모(70)씨는 “문 닫기 직전이지만 가까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신구간이란 비교하면 지금은 체감상 손님이 70~80%는 줄어든 것 같다”라며 “1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들도 잘 안 사는 분위기라 이런 소규모 가구 매장들은 사양길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25년째 서문가구거리를 지켜온 이모(50대)씨도 “15년 전만 해도 신구간에는 새벽까지 배송하고 야근이 일상이었다”라며 “이젠 신구간에 손님이 10% 정도 더 올까 말까 할 정도로 무의미해졌다”고 강조했다.



12일 오전 제주시 용담1동의 서문가구거리. 신구간을 2주가량 앞둔 이사 대목에도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양유리기자

마찬가지로 25년째 가구점을 운영하는 윤모(54)씨는 “오는 손님마다 쿠팡이랑 가격 비교를 하는데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 속상할 따름”이라며 “손님이 뜸한 가장 큰 영향은 건설경기 악화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제주의 건설경기 침체는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지난해 3분기 제주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도내 건설수주액(잠정)은 128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9.7% 급감했다.

제주지역 주택경기에 대한 업체들의 기대도를 반영하는 ‘주택사업 경기전망지수’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 64.2로 기준선(100)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라지는 전통 풍습에 더해 건설·주택경기 악화, 온라인 및 대형매장 확산으로 도내 가구 1번지 서문가구거리를 찾는 손님들이 발걸음은 점점 뜸해지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 제주관광대학교, 7년 연속 도내 취업률 1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79%... 전국 평균보다 6.6%p 높아

제주관광대학교가 도내 대학 가운데 7년 연속 취업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관광대는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졸업생 취업률이 7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72.4%)보다 6.6%p 높은 수치이다.

이번 취업률 조사는 2024년 2월 및 2023년 8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병무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취업 여부와 취업 준비 기간, 급여 수준 등 7개 항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유일의 관광특성화 사립 전문대학인 제주관광대는 대학혁신지

원사업과 LINC 3.0, SCOUT 사업, 중소기업사관 육성사업 등 다수의 국고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교육과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해 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6개 과제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진로취업센터를 중심으로 졸업생 지도교수제, 맞춤형 진로·취업 상담, 창업교육 연계 프로그램 등도 운영 중이다.

김준오 진로취업지원센터장은 “지역 산업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충실히 수행한 점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단순한 취업률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취업의 질을 높이는 교육을 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 초3~고1까지 1인 1디지털기기 환경 구축

도교육청, 중1 노트북 신청 접수

제주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1인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학습 환경이 구축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일부터 2026학년도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드림노트북 지원(대여)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오는 3월 1학기 신학기부터 초3~고1까지 1인 1 디지털 기기 보급 체계가 갖춰진다.

드림노트북 사업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기를 지원해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2023년 7000대를 시작으로 2024년 6835대, 2025년 6988대의 드림노트북을 보급해 왔으며,

올해 중학교 신입생 6525대 지원이 완료되면 4년간 총 2만7348대의 기기가 공급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태블릿 1만9818대 보급도 마쳤다.

드림노트북 신청 대상은 2026학년도 도내 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으로, 내달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사이트(<https://schoolreg.org/jjeEdu2026>)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기기 수령은 내달 11일부터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보호자는 관계 증명 서류를 지참해 학교를 방문해야 한다.

대여된 노트북은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간 사용하게 되며, 도교육청은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와 전담 콜센터 운영으로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국민과 함께하는  
**농심천심**  
농업가치 국민공공! 농심천심 운동

국민의 먹거리를 키워줍니다. 도시와 경제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터이자 일터이며 쉼터인 우리 고장 농촌을 지켜갑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축협운영협의회는 우리의 생명산업을 지켜가는 사명과  
의지로 고객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늘 푸른 이웃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 주 축 산 업 협 동 조 합**  
**제주양돈축산업협동조합**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농 협 중 앙 회 제 주 본 부**

**조합장 천 창 수**  
**조합장 고 권 진**  
**조합장 김 용 관**  
**본부장 이 춘 협**